

눈 오는 날 장서리 내린 날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글·그림 | 김은정 옮김 | 이순원 강원도 사투리 | 북극곰

#눈 #생명 존중 #공존 #도움 #사랑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	---	---	----

<활동지1>



다른 사람을 위한 말

이름 ()

1. 『눈 오는 날』 그림책 속 당나귀 아저씨와 젖소 아줌마의 말과 행동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찾아 쓰고 어떤 성격인지 알아보시다.

등장인물	말 또는 행동	인물의 성격
예) 젖소 아줌마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우리한테는 쉴 곳도 있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아늑한 잠자리도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예) 당나귀 아저씨	“그나저나 밖에 있는 동물들이 걱정이네요.”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는 여유와 배려의 마음을 가짐.
예) 젖소 아줌마	“물론이지.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호호 불어서 따뜻하게 해 줄게.”	다정하고 상냥함.

2. 추운 겨울날 밖을 헤매고 있는데, 당나귀 아저씨와 젖소 아줌마를 만나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봅시다.

3. 배려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나귀 아저씨와 젖소 아줌마라면? 이라고 상상하고, 다음 상황에서 따뜻한 말을 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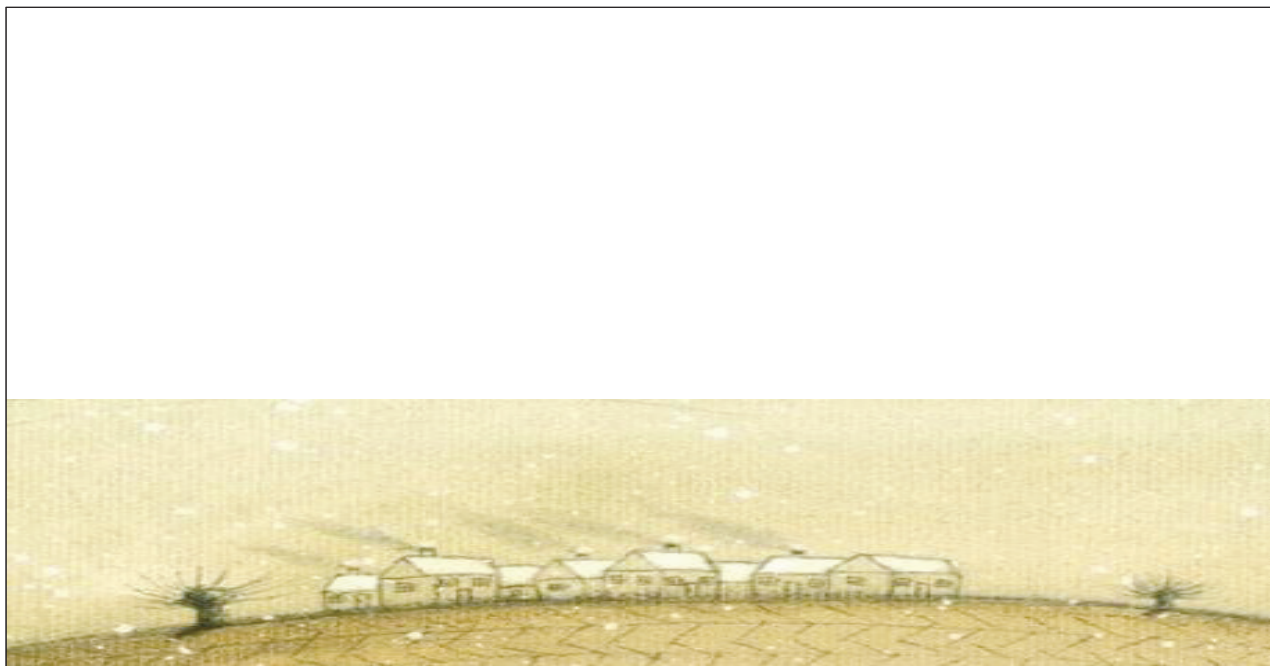
상황	따뜻한 말
추위에 뽀뽀 언 굴뚝새에게	
아기를 낳은 아줌마에게	

<활동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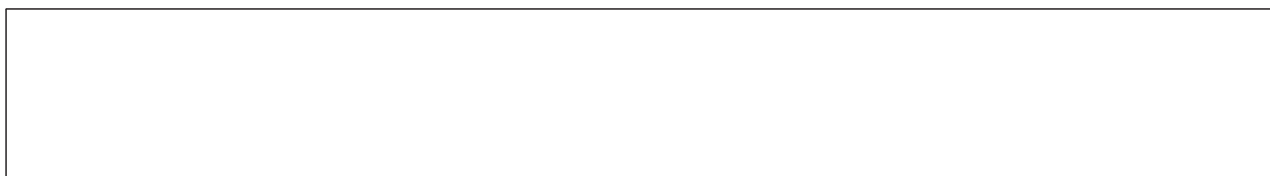


추운 겨울날, 마구간에 모인 이유 이름 ()

1. 추운 겨울날 굴뚝새, 여우, 딱따구리는 마을 주위를 헤매고 있었어요. 동물들은 어떤 사연으로 마구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2. 아저씨와 임신한 아줌마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었을까? 마을의 여러 곳을 헤맸지만 아무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 주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3. 밤 열두 시가 되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마구간 위로 살며시 내려왔지요. 이 장면의 반짝이는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활동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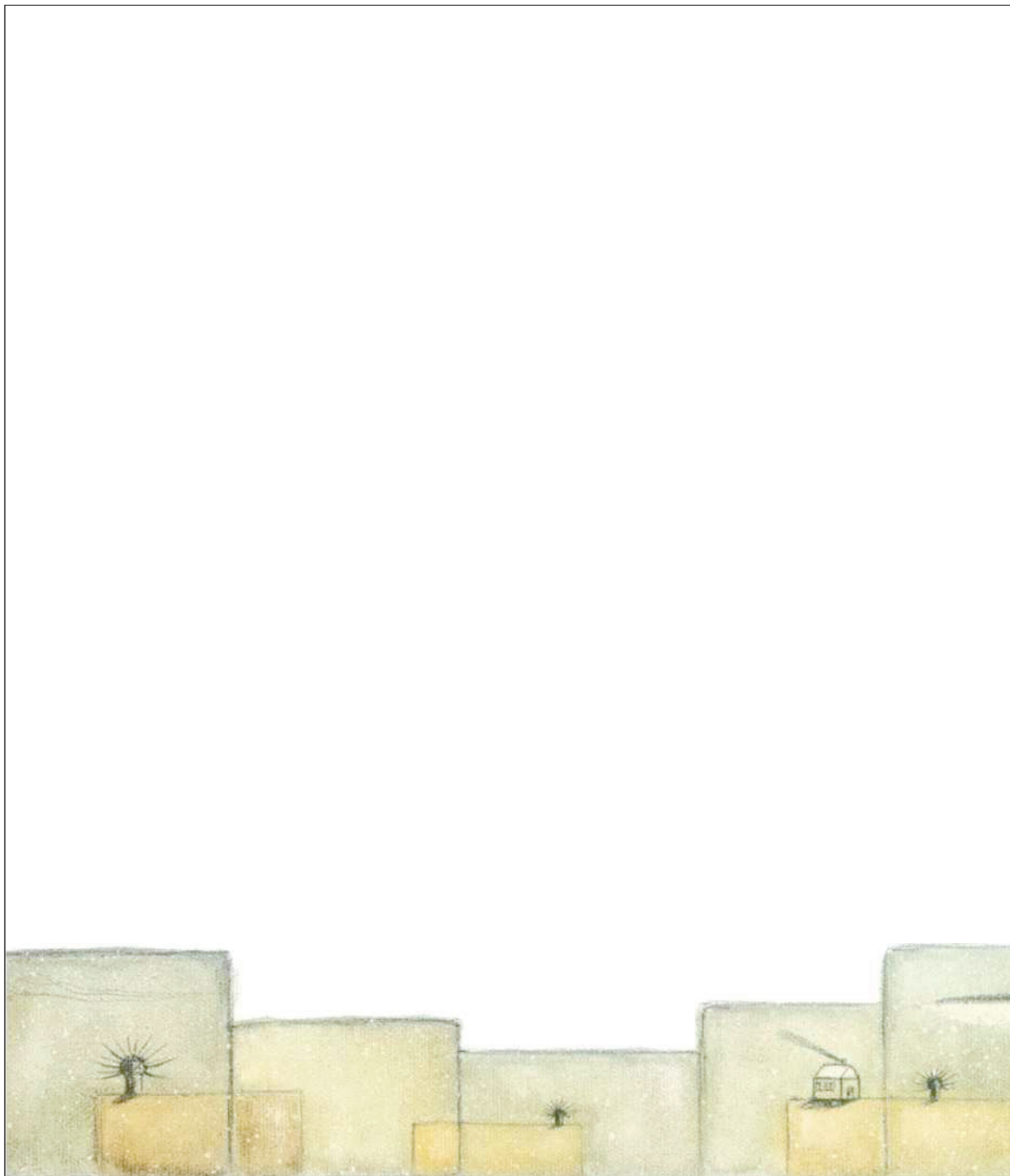


『눈 오는 날(장서리 내린 날)』 이름 ()

준비물

솜, 폼폼, 휴지, 물감, 크레파스, 스펀지, 빨대, 검은 도화지 등

눈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눈 쌓인 곳을 밟아 본 적 있나요?
그때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활동지4>



사투리로 바꾸어 읽기

이름 ()

- 다음 『눈 오는 날』의 일부분을 사투리로 바꾸어 읽어 봅시다.

갈호()안의 지역 예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참고) -네이버 국어사전 방언

표준말	() 사투리로 바꾸면
“눈이 오네요!” 젖소 아줌마가 창밖을 보며 말을 건넸어요.	“뭉이 눈이 오잖소야!” 젖쇠 아주머이가 광창으 내다보미 말으 건넸사요.
표준말	() 사투리로 바꾸면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우리한테는 쉴 곳도 있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아늑한 잠자리도 있잖아요.”	
표준말	() 사투리로 바꾸면
바로 그때 끽끽 언 굴뚝새가 작은 날개를 파르르 떨며 찾아왔어요. “오늘 밤에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요? 바깥 날 씨가 너무 추워요.” 굴뚝새는 목소리마저 떨렸어요	
표준말	() 사투리로 바꾸면
“물론이지! 이곳엔 네가 쉴 자리도 넉넉하단다.” 젖소 아줌마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표준말	() 사투리로 바꾸면

- 사투리로 바꾼 후, 실감나게 말해 봅시다.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눈 오는 날 장서리 내린 날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글·그림 | 김은정 옮김
이순원 강원도 사투리 | 북극곰

#눈 #생명 존중
#공존 #도움 #사랑

주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대화하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1-03]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도덕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작성자	창원 현동초등학교 남하나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엠마누엘레 베르토시는 이탈리아 북부 프리울리 지방에서 태어나 이 작품을 프리울리 사투리로 썼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모티브로 자연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눈 오는 날』을 보면 말구유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떠오릅니다.

『눈 오는 날』은 표준말과 강원도 사투리 두 가지로 쓰여 있어서 다른 지역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표준말로 이해한 뒤 강원도 사투리로 읽으면 투박하고 푸근한 음감 때문에 때로는 웃음이 터지고 때로는 가슴이 찡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가진 상상하는 즐거움과 읽는 즐거움 그리고 듣는 즐거움까지 배가시킵니다.

그림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러난 부드러운 색감과 선은 마치 오래된 동요처럼 보는 이의 마음 속으로 스며듭니다.

■ 학습 목표

-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다.
- 사투리를 이해하고 직접 표현할 수 있다.
-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
- 눈 오는 날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수업 준비

이탈리아의 한 지방에서 태어난 작가는 『눈 오는 날』은 그 지역의 사투리로 표현하였다.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서 탄생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책은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환경과 배려를 담고 있다.

눈 오는 날은 춥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마구간 안의 이야기 덕분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중하게 건네는 부탁과 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말에서 정을 느낄 수 있다. 작은 배려로 아기는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고 작고 귀여운 동물들은 쉼터를 얻었다. 도덕 수업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배려의 한 마디, 작고 따뜻한 마음 나누기를 연습해 보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판사는 이탈리아 사투리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인 강원도 사투리로 바꾸는 작업까지 해냈다. 그럼으로써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 깊이 전달하려는 애쓴 듯하다. 사투리로 만들어진 그림책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이 책에서 강원도 사투리의 구수함과 친근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사투리가 많이 사라져 아쉬운 요즘, 우리나라 사투리의 가치를 수업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다. 사투리로 바꾸어 읽어 보고 자신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필기구, 장서리 내린 날 사투리 영상 자료, 홀라후프 12개, 크레파스, 수채 물감, 솜, 스펀지 등 콜라주 재료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표지 살펴보기 강원도 사투리로 들어보기	1차시
읽는 중	강원도 사투리로 다시 듣고 이해하기 내용 확인하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이야기 속 숨은 내용 상상하기 눈 오는 날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2차시
읽은 후	역할 놀이하기	2차시
	사투리로 바꾸어 읽어 보기	2차시
	공동체 놀이하기	1차시

읽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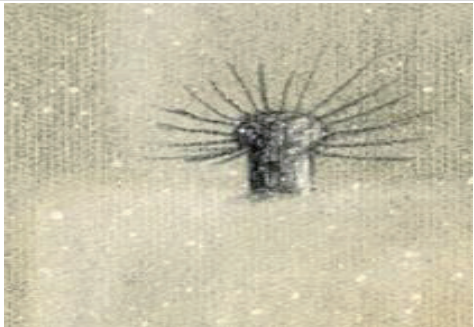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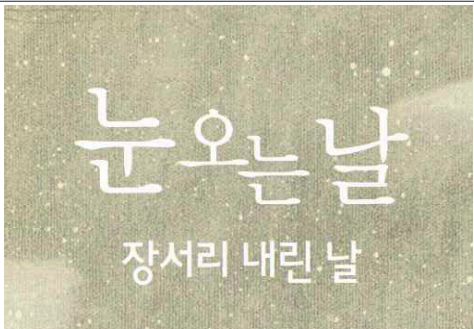
1. 마음 열기

- ‘눈 오는 날’ 경험 나누기
 - ‘눈’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 ‘눈 오는 날’ 무엇을 해 보았나요? 눈이 오면 얼마나 추울까요?
 - ‘눈’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 예) 눈은 하얗다. 차갑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요.
 눈 오는 날 밖에서 놀다 보면 손과 발이 푹푹 얼어요.
 바닥에 눈이 쌓이고 얼음으로 변해 미끄러지기도 해요.
 ‘눈의 여왕’이나 ‘겨울 왕국’이 생각나요. 주인공 안나가 눈 속에서 추위에 떨어져 얼음으로 변해요.

2.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표지 그림 살펴보기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 예) 눈이 내리는 모습 같아요. 가운데 집이 있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보여요.
- 표지의 각 부분을 확대하여 자세히 살펴봅시다.

Tip.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감으로 그려진 표지의 특성상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지 자세히 살펴보기	
	- 가운데 집을 살펴봅시다. 예)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집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어요. - 울타리 중간에 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니 열려 있어요.
	- 다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예) 눈이 오는 날, 가시같이 뾰족하고 긴 것이 있어요. 예)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그린 것 같아요.
	- 제목을 읽어 봅시다. 장서리가 무슨 뜻일까요? 예) '장서리' 라는 말을 처음 들어요. - 장서리 의미 확인하기: 어른 키만큼 내린 눈을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 - 눈 오는 날과 장서리 내린 날은 같은 말 같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Tip. 다음 순서대로 노출시켜서 읽어 줄 그림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인다.

1. 울타리의 문이 열려 있고, 굴뚝에는 연기가 나오는 집
2. 눈이 내리는 날 앞은 없고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계절적으로 겨울임)
3. 두 가지 제목

2. 강원도 사투리로 들어 보기



북극곰 유튜브 - 장서리 내린 날

(영상 설명) 이탈리아 북부 사투리와 표준어로 쓰인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기고,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순원 소설가가 강원도 사투리로 옮기고 직접 녹음했다.

- 강원도 사투리로 녹음한 '눈 오는 날'을 들으니 느낌이 어떤가요?
- 사투리 중에 아는 단어가 나왔나요? 어떤 단어를 들었는지 말해 봅시다.
-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한 만큼 말해 봅시다.

읽는 중

1. 강원도 사투리로 다시 듣고 이해하기

처음 교사가 읽어 줄 때 강원도 사투리로 젓소 아주머니와 당나귀 아저씨의 대화부터 굴뚝새를 들어오게 하는 장면까지 한 번 읽어 준다.

Tip. 교사가 강원도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이순원 작가가 강원도 사투리로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준다.

- 무슨 내용의 이야기인가요?

예) 선생님, 우리나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 선생님이 한 번 더 들려줄 테니 잘 들어 봅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2~3번 읽어 주거나 들려준다.)

- 누가 등장했나요?

예) 젓소, 당나귀

- 이야기 속 날씨는 어땠나요?

예) 눈이 많이 와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 젓소 아주머니와 당나귀 아저씨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예) 굴뚝새입니다.

- 굴뚝새는 왜 찾아왔나요?

예) 너무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아왔어요.

2. 내용 확인하기

■ 그림책 함께 읽기

- 그림을 잘 살펴보고 선생님이 읽어 주시는 ‘눈 오는 날’을 잘 들어 봅시다.

- 강원도 사투리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표준말로 주의 깊게 들어 봅시다.

- 강원도 사투리로 들었을 때와 표준말로 들었을 때의 차이점과 각각의 느낌을 말해 봅시다.

예) 강원도 사투리로 들었을 때는 이해 안 되었던 부분이 잘 이해되었어요.

사투리로 들었을 때는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들고, 눈 내리는 마을의 느낌이 더 잘 살아나요.

- 추운 날씨에 찾아온 동물들은 누구인가요?

예) 굴뚝새, 여우, 딱따구리입니다.

- 아저씨와 아줌마는 온 마을을 헤맸지만 결국 마구간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온 마을을 헤맸지만 아무도 받아 주지 않아서입니다.

- 아줌마는 어떤 상태였나요?

예) 임신을 했고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3.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활동지1 참고>

- 마구간에 원래 살고 있던 젓소 아줌마와 당나귀 아저씨의 말을 보고 어떠한 성격인지 알아봅시다.

예) 젓소 아줌마: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우리한테는 쉴 곳도 있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아늑한 잠자리도 있잖아요.” ▶ 긍정적이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 추운 겨울날 밖을 헤매고 있는데, 당나귀 아저씨와 젓소 아줌마를 만나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봅시다.

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안심이 될 것 같다.

- 내가 당나귀 아저씨와 젖소 아줌마라면? 이라고 상상하고, 다음 상황에서 따뜻한 말을 전해 봅시다.
예) 추위에 뽀뽀 언 굴뚝새에게: 굴뚝새야, 어서 들어와, 여기 따뜻한 곳에 앉아서 쉬어.

4. 이야기 속 숨은 내용 상상하기 <활동지2 참고>

- 동물들은 어떤 사연으로 마구간까지 오게 되었을까?
- 아저씨와 아줌마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임신한 몸으로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었을까?
예) 원래 살던 마을에 병원이 없어 이웃 마을 병원으로 가던 중 길을 잃고 날이 어두워졌다.
- 아저씨와 아줌마를 본 마구간의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 왜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와 아줌마를 반기지 않았을까?
예) 아저씨와 아줌마가 어떤 사람일지 몰라서
자신들의 따뜻한 음식과 방을 나눠 주기 싫어서
- 마구간 위로 떨어지는 별은 어떤 의미일까?
예) 새 생명인 아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5. 눈 오는 날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활동지3 참고>

- 『눈 오는 날』 속 다양한 감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Tip. 눈의 결정 모습, 눈이 흩날리는 모습, 소복소복 쌓이는 모습 등 여러 가지 눈의 모습을 보여 주고, 눈 오는 날의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 눈이 오는 날에 눈을 맞아 보았나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예) 눈이 올 때 손으로 받으면 눈의 결정이 조금 보여요. 차갑고 이뻐요.
- 쌓인 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처음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나나요?
예) 눈이 쌓였을 때 내가 처음으로 밟아 보고 싶어요. 눈을 밟을 때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 눈 내린 다음 날, 걸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눈을 먹어 본 적이 있나요?
- 눈을 만지고 놀면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나요?
예) 눈을 만지고 놀면 나중에는 손이 뽀뽀, 발이 뽀뽀 얼어요.

- 눈 오는 날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Tip. 크레파스+수채 물감, 아크릴 콜라주, 솜을 붙여서 표현, 스펀지로 찍어서 표현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한다.

읽은 후

1. 역할 놀이하기

- 마구간의 젓소 아줌마와 당나귀 아저씨가 되어 마구간의 문을 열어 동물 친구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는 역할 놀이를 해 봅시다. 마구간을 찾아오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든지 좋습니다. 아줌마,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말을 건네고, 문을 열어 주며 친절하게 맞아 주는 말을 함께 해 봅시다.
- 등장인물: 젓소 아줌마, 당나귀 아저씨, 동물들
- 상황: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려 동물들이 갈 곳을 찾고 있다.

역할놀이 방법

1. 전체 인원을 반으로 나눈다. 반은 마구간 안의 동물(젓소 아줌마, 당나귀 아저씨), 나머지 반은 동물이 된다. 어떤 동물이 될지 스스로 정한다.
2. 마구간 안의 동물 역할을 맡은 친구는 2명씩 손을 맞잡는다.
3. 동물들은 추위에 떨며 손을 잡은 친구들에게 다가가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한다.

마구간 밖의 동물들 대사 예시			
오늘 밤에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젓소 아줌마,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눈을 피할 데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좀 들어갈 수도 될까요? 바깥 날씨는 너무 추운데 아내는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손발이 퐁퐁 얼었어요. 안에 들어가 몸 좀 녹일 수 있을까요?

4. 마구간 안의 동물 역할을 맡은 친구는 따뜻한 환영을 건네며 짝과 마주 잡은 손 중 한쪽을 열어 동물들을 들어오게 한다.

마구간 안의 동물 대사 예시			
물론이지! 이곳엔 네가 설 자리도 넉넉하단다.	물론이지.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호호 불어서 따뜻하게 해 줄게.	어서 와. 많이 추웠지. 이 담요 좀 덮으렴.	그래. 얼른 들어와. 여기 따뜻한 물도 마셔 봐.

2. 사투리로 바꾸어 읽어 보기<활동지4 참고>

- 그림책의 일부분을 강원도 사투리로 읽어 본다.
 - 그림책의 한 부분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투리로 바꾸고, 읽는 연습을 한 후 녹음하여 친구들과 같이 들어 본다.
 - 사투리로 녹음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한다.
- Tip. 활동지의 <네이버 국어사전 방언> QR코드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인다.

예) 경상도 사투리

표준말	우리 지역의 사투리 (경상남도 사투리)로 바꾸기(예)
날은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밤중에 누굴까요?” 당나귀 아저씨가 눈을	날이 벌써로 씨꺼매짓네예. 그 때 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느니라예. “이 밤중에 누구까예.” 당나귀 아재가 눈을 끔뻑거리며

끔빱이며 말했어요.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문 밖에 아까 보았던 바로 그 아저씨와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바깥 날씨는 너무 추운데 아내는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온 마을을 헤맸지만 아무도 우릴 반기지 않아요.”	말했어예. 문이 사살 열렸어예. 문 밖에 아~까 보았던 바로 그 아제와 아줌니가 서 있었어예. “우리가 쪼매 들어가도 될까예? 바깥 날씨가 억수로 추분데 우리 안사람이 곧 얼락을 낳을 것 같아예. 마을을 전시네 돌아댁기도 아무도 우리를 반갑다 안해예.”
---	--

3. 공동체 놀이하기

■ 손잡고 일어서기 놀이하기

<놀이방법>

1. 두 명씩 서로를 바라보고 앉는다.
2. 두 손을 잡고 양발 끝을 서로 붙인 상태에서 당기는 힘을 이용해 일어선다.
3. 모듬의 두 명이 성공하면 세 명-네 명-다섯 명 순으로 시도한다.
(세 명 이상 손을 잡을 때는 양팔을 엇갈라 손을 잡는다.)
4. 모듬원끼리 모두 성공하면 다른 모듬과 합쳐 최소 여덟 명 이상을 시도해 본다.
5. 8명까지 모두 성공하면 다른 모듬을 도와준다.

■ 손잡고 후프 넘기기 놀이

<놀이방법>

1. 모듬원(4명)이 서로를 바라보고 등글게 서서 손을 잡는다.
2. 후프를 어깨에 얹은 상태에서 시작하며 내 몸을 통과하여 옆 사람에게 후프를 넘긴다.
3. 손을 잡은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을 먼저 통과시킨 후 머리와 어깨-팔 순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좋다.
4. 손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하며, 네 명 모듬이 성공하면 옆 모듬과 함께 여덟 명이 같이 놀이한다.
5. 후프 1개가 익숙해지면 후프 2개를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도 해 보자.

Tip. 놀이 활동 시 서로 못 한다고 탓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출처: 이종대왕-교실 놀이터-공동체 놀이)